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추론 영역에 대한 이해: 개인적 영역을 중심으로

박 영 신 1)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3,4,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유아들에게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 문제와 더불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속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 가지 준거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유아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문제보다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에 덜 복종해도 되고, 어머니의 지시가 없으면 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어머니의 지시를 어겼을 때에도 부정적 기분을 덜 느꼈고,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문제보다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유아들이 더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반해 유아들은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심리통제를 많이 받는 유아들은 개인적 문제를 더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요어 :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심리통제, 부모지지, 유아

사회적 추론의 영역모델에 의하면,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추론은 세 영역, 즉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으로 구성된다(Nucci, 1981; Turiel, 1983). 도덕적 영역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와 같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들로 구성되며 다른 사람의 권리, 행복과 정의 등이 중요시 되는 영역이다. 도덕적 영역을 정의하는 규칙들은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사회 관습적 영역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와 같이 사회체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하는 행동상의 통일성을 위한 규칙들로 구성되며 사회적 관습이나 기대가 중요시되는 영역이다. 사회 관습적 영역을 정의하는 규칙들은 도덕적 규칙과는 달리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도덕적 및 사회

1) 이 연구는 2010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박영신, yoshpark@knu.ac.kr

관습적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되는 영역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통제가 불가피한 문제들로 구성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영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질서를 깨는 것과는 무관하며 행위자 자신과만 관련되는 문제들로 구성된 영역으로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기대로 인한 통제와는 무관하며 개인적 선호와 선택이 중요한 영역이다(Nucci, 1981; 1996). 이 가운데에서 개인적 영역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두 영역과 달리 아동들이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어떤 친구를 선택할 지 등이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전형적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아동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아동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한 선택, 결정과 관리의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과 주변의 권위자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 사이에 선을 긋고, 더 나아가서 독특하고 고유한 개인으로서의 개인적 정체감과 자율감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Helwig, 2006; Nucci, 1996).

이러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유아들에게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여러 준거에서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문제들과 비교하게 하였을 때 미국의 3세에서 6세 유아들은 자신의 작품에 우유를 쏟는 것과 같은 개인적 문제를 친구의 작품에 우유를 쏟는 것과 같은 도덕적 문제보다 덜 나쁘고, 벌을 덜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Tisak, 1993). 마찬가지로 홍콩의 4세와 6세 유아들도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와 다르게 판단하였다(Yau & Smetana, 2003). 우리나라 4세와 5세 유아들도 개인적 문제보다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

제에 대해 더 허용적이고, 규칙의 위반이 덜 나쁘고, 규칙과 더 무관하고, 개인적 선택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박영신, 2006; 부성숙, 2007).

이러한 구분은 세 영역의 문제에 대한 권위자들의 통제에 대한 반응에서도 나타났다. 세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자들이 지시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권위자들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지, 권위자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 권위자의 지시가 없다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은지 등의 여러 준거에서 비교하게 하였다. 미국의 학령전기 3세와 4세 유아들도 개인적 문제를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와 구분하였다(Nucci & Weber, 1995; Weber, 1999). 즉, 유아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보다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지시가 더 부당하고, 덜 복종해도 되고, 지시가 없으면 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보았다. 유아들은 교사의 지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Ardila-Rey & Killen, 2001; Killen & Smetana, 1999). 콜롬비아 3세, 5세, 7세 아동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보다 개인적 문제에 대해 교사가 지시를 하는 것이 더 부당하고, 지시에 덜 복종해도 된다고 보았다. 즉, 유아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한 권위자들의 통제보다 개인적 문제에 대한 권위자들의 통제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런 경향은 3세 유아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들은 개인적 영역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동이나 문제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권에 관계없이 유아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권위자들의 통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유아들도

4세부터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을 다른 두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과 잘 구분하였으나(박영신, 2006),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통제권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들은 개인적 문제를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다른 나라 유아들에 비해 많이 낮았다. 우리나라 만 4세 유아의 40%와 5세 유아의 60%가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아서 연령에 따라 개인적 문제를 자신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증가하였지만(박영신, 2006), 홍콩 만 4세와 6세 유아 66%와 78%(Yau & Smetana, 2003), 미국 만 4세와 5세 유아 69%와 86% (Killen & Smetana, 1999)가 자신들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보다 그 비율이 훨씬 낮았다. 게다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대한 통제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는 경향은 우리나라 유아들에서 더 강했다. 우리나라 유아들의 약 80%가 두 영역의 문제에 대한 통제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본데 반해, 홍콩 유아 약 60%가 부모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다. 즉, 미국이나 홍콩 유아들에 비해 우리나라 유아들은 개인적 영역을 포함한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부모의 통제권을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간으로서 개인적 정체감이나 독립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장이 되는 개인적 영역의 발달과정이 우리나라 유아들에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통제는 개인적 영역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며, 우리 유아들이 부모 통제에 취약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유아들이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적 영역의 발달은 유아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부모통제를 잘 극복하고, 자신이 고유한 권한을 가지는 삶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

가는 과정이므로 부모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은 자녀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나 생각이다. 즉,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얼마나 통제권을 부여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5세에서 7세 유아를 가진 미국 어머니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자신들이 통제해야 하지만 개인적 문제들은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지각하였다(Nucci & Smetana, 1996). 비슷하게 3세와 4세 유아들을 가진 미국 어머니들도 아이들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종교적 규범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였지만 옷, 놀이, 음식의 종류와 양이나 친구와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Nucci & Weber, 1995).

이런 경향은 비단 미국 어머니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3세에서 6세 자녀를 가진 일본 어머니들은 여가활동, 옷, 친구선택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나 매일의 일과, 여가활동과 다른 사람과의 대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da, 2004).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대만 어머니들도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한을 두었지만, 여가활동, 옷이나 친구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아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Chuang, 2006). 이처럼 미국, 일본이나 중국의 어머니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나 자녀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보다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통제권을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런 경향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누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또 다른 측면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개인적 영역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는 양육방식은 심리통제이다. 심리통제란 행동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고과정, 자기표현, 정서와 부모에 대한 애착 등과 같은 아동의 심리적 및 정서적 세계를 통제하는 양육방식이다(Barber, 1996). 이러한 심리통제는 아동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자존감(우미경, 박영신, 2012; Barber, 1996), 심리적 복지감(조한숙, 문혁준, 2008), 자기통제(박나영, 2011)가 낮았고,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증상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증상이 높았다(권기정, 전숙영, 2010; 정윤주, 2004; Aunola & Nurmi, 2005). 심리통제는 특히 자녀들의 생각, 자기표현, 정서 등을 잘 인정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개인적 영역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첫째, 우리나라 유아들에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부모통제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4,5세 유아들에게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어머니가 지시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어머니의 지시를 여러 준거 즉 지시에 대한 복종 여부, 어머니 지시의 적합성, 통제권의 소재, 권위 의존성(Ardila-Rey & Killen, 2001; Milnitsky-Sapiro, Turiel, & Nucci, 2006; Nucci & Weber, 1995) 및 최근 도덕적 추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정서판단(Laguattuta, 2005; Lagattuta,

Nucci, & Bosacki, 2010)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유아들에서 개인적 영역이 발달하였다면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어머니 지시에 대해 다른 두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보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져야 한다고 보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생각이 유아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머니들에게 유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제시하고 각 이야기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통제권이 유아, 부모, 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있는지에 따라 세 범주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어머니들이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을 인정한다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보다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더 자녀들이 통제권을 가져야한다고 볼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방식, 특히 심리통제가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통제는 유아들의 개인적 자율성이나 자기표현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양육방식이므로 아동들의 여러 영역의 발달과 부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처럼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도 부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유아. 만 3세부터 6세 사이의 유아 64명이 참여하였으나 면접에 끝까지 참여하기 어려웠던 9명의 유아들을 제외한 55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3세 집단 22명(남아 10명, 여아 12명), 4세

집단 22명(남아 11명, 여아 11명), 5세 집단 11명(남아 7명, 여아 4명)이었다. 평균 월령은 각 집단이 42.45개월, 51.73개월, 66개월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38세와 35세였다. 형제가 없는 유아들이 26%, 1명인 유아들이 56%. 2명인 유아들이 18%였다. 대부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대부분이 가정주부였다.

어머니. 연구에 참여하였던 유아들의 어머니 64명이 모두 면접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한 62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이 어머니들의 연령은 27세~42세 사이였다. 87%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78%가 가정주부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K대학교에서 실시하였던 다른 연구에 한 번 참여하였던 어머니들이었고, 일부 어머니는 D지역에 개설된 아동양육 관련 카페를 통해 모집되었다.

측정도구

유아. 개인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 4개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각각 2개를 사용하였다. 개인적 이야기는 친구선택, 음식선택, 놀이선택, 머리스타일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도덕적 이야기는 친구 때리기와 그네 혼자 타기였고, 사회 관습적 이야기는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기, 입에 음식 넣고 말하기였다. 각 이야기는 주인공이 여아 또는 남아인 두 버전을 만들어 대상 유아의 성별에 맞추어 사용하였고,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이야기의 내용을 그린 색깔이 있는 8장의 그림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첫째, 유아들의 배경 정보-생년월일, 성별, 주소, 유아교육기관 재학 여부, 가족사항(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형제의 연령, 성별, 나이 등)-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둘째, 부모들이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들에게 사용하였던 8개의 문제를 각각 하나씩 기록한 8개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박나영(2011)이 사용하였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심리통제 16문항, 행동통제 6문항, 부모지지 10문항으로 평가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박나영의 연구에서는 심리통제 .81, 행동통제 .66, 부모지지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5, .67, .87이었다.

연구절차 및 코딩

유아. 연구는 발달심리학을 전공하는 5명의 여성 연구자들이 K대학교에 있는 실험실에서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실험실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면접을 받았다. 우선 어머니에게 유아의 배경정보와 양육방식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유아들에게 개인적,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어머니 지시에 대한 복종 여부, 어머니 지시의 적합성 여부, 통제권의 소재, 권위의 존성, 그리고 정서에 대한 질문을 차례대로 하였다.

복종여부, 지시의 적합성 여부, 권위의존성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 반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통제권의 소재에 대해서는 '엄마',

표 1 이야기의 예와 질문들

철수는 그네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동네 그네를 아무도 타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아이들도 태워주라고 하셨어요.

복종 여부	엄마 말을 들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시의 적합성 여부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옳은가요?
통제권의 소재	누가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하나요? 엄마, 아이, 같이? 왜 그렇게 생각해요?
권위의존성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요?
정서	그런데 철수는 혼자만 탔어요. 철수는 기분이 좋을가요? 나쁠까요?

‘아이’, ‘같이’라는 세 반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복종의 이유와 통제권 소재에 대한 이유를 자유롭게 말하게 하였다. 정서는 웃는 얼굴, 표정 없는 얼굴, 찡그린 얼굴 세 개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복종여부, 지시의 적합성 여부, 권위의존성에 대한 ‘예’ 반응은 1점으로, 그 밖의 반응은 0점으로 코딩하였다. 정서에 대한 반응은 웃는 얼굴은 1점, 표정 없는 얼굴은 2점, 찡그린 얼굴은 3점으로 코딩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느낌을 나타낸다.

어머니. 어머니 면접은 유아면접이 끝난 다음 유아들이 면접을 받았던 실험실 옆에 위치한 조용한 강의실에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방식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연구의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고 유아들에게 사용하였던 이야기를 기록한 8장의 카드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각 이야기를 잘 읽은 다음 제시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아이, 엄마, 또는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있는지에 따라 카드를 세 범주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어머니가 설명한 내용을 준비된 반응지에 기록하였고 동시에 어머니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다. 전체 면

담에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각 카드에 대한 반응을 ‘엄마’, ‘아이’, ‘같이’의 세 범주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로 코딩하였다. 즉, 사용된 범주는 1점, 사용되지 않은 범주는 0점으로 코딩한 다음 어머니 별로 개인적,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대해 각 범주를 사용한 평균 비율을 산출하였다.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은 연구자가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기록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녹음된 내용을 참조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어머니가 제시한 설명은 선행연구들(Nucci & Smetana, 1996) 참고하여 도덕적, 사회 관습적, 개인적, 실용적 이유, 안전과 위생 및 기타의 여섯 범주로 코딩하였다. 어머니 별로 개인적,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각 범주를 사용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결 과

개인적 영역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

자료는 관련 선행연구들(예, Yau & Smetana, 2003)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정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의 비정상성(nonnormality)을 수정하

기 위해 자료에 arcsine 변환을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Winer, Brown, & Michels, 1991). 그러나 표에는 해석이 용이하도록 변환되지 않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2 연령과 영역에 따른 지시에 대한 복종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3세	.88 (.26)	.95 (.22)	.93 (.24)
4세	.98 (.07)	1.00 (.00)	1.00 (.00)
5세	.84 (.23)	.95 (.15)	1.00 (.00)
전체	.91 (.20)	.97 (.15)	.97 (.15)

표 2에 연령과 영역에 따른 복종여부에 대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세 영역에서 모두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반응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3(연령)×3(영역)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역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_{2,102}=8.92, p<.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이나 사회 관습적 영역의 차이가 유의하였다($F_{1,51}=11.38, p<.01$; $F_{1,51}=9.89, p<.01$). 즉, 유아들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보다 어머니 지시에 덜 복종해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령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반응을 하지 않았던 유아들이 많아서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3에 연령과 영역에 따른 어머니 지시의 적합

표 3 연령과 영역에 따른 지시의 적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3세	.69 (.35)	.57 (.48)	.67 (.43)
4세	.75 (.36)	.79 (.34)	.82 (.33)
5세	.66 (.34)	.73 (.34)	.73(.47)
전체	.71 (.35)	.69 (.41)	.74(.40)

성 즉, 어머니가 지시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세 영역에서 모두 어머니가 지시하는 것이 옳다는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연령이나 영역의 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만큼 어머니가 지시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다.

표 4 연령과 영역에 따른 권위의존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3세	.39 (.42)	.25 (.26)	.21 (.34)
4세	.24 (.36)	.16 (.28)	.25 (.37)
5세	.39 (.39)	.35 (.34)	.27 (.41)
전체	.33 (.39)	.23 (.29)	.24 (.36)

표 4에 연령과 영역에 따른 권위의존성에 대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세 영역 모두에서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반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영역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_{2,98}=5.38, p<.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의 차이($F_{1,49}=9.63, p<.01$), 개인적 영역과 사회 관습적 영역의 차이($F_{1,49}=4.50, p<.05$)가 유의하여 유아들은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보다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표 5 연령과 영역에 따른 정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3세	1.86 (.52)	2.22 (.54)	2.10 (.61)
4세	2.18 (.59)	2.34 (.68)	2.18 (.68)
5세	1.62 (.61)	2.28 (.51)	1.91 (.58)
전체	1.95 (.59)	2.28 (.59)	2.09 (.63)

있었다.

표 5에 연령과 영역에 따른 어머니의 지시를 어겼을 때 유아들이 느끼는 기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 결과, 영역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_{2,94}=9.44, p<.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들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를 어겼을 때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를 어겼을 때 보다 부정적 기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_{1,47}=21.26, p<.01; F_{1,47}=5.05, p<.05$).

표 6에 연령과 영역에 따른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엄마’, ‘아이’, ‘같이’의 세 범주에 대한 반응을 특정 범주를 선택했으면 1점, 하지 않았으면 0점으로 코딩하여 범주별 평균 비율을 산출하였다. 세 범주별 반응 각각에 대해 3(연령)×3(영역)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를 선택한 반응이나 ‘같이’를 선택한 반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이나 영역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개인적 문제를 아이가 통제해야한다는 경향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를 아이가 통제해야한다는 경향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엄마’를 선택한 반응의 분석에서 영역의 주 효과가 유의하여서($F_{2,94}=3.27,$

$p<.05$)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 관습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보다 엄마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더 컸으나($F_{1,47}=5.40, p<.05$), 오히려 도덕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를 엄마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아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보다 개인적 문제에 대해 엄마의 말을 덜 들어도 되고, 엄마의 지시가 없으면 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혹 엄마의 지시를 어겼을 때에도 부정적 기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어린 연령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유아들이 어머니의 통제를 해석할 때 영역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처럼 영역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반응을 살펴보면 유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어머니가 지시하는 것이 옳고,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더 중요하게는 개인적 문제를 자신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와 차이가 없었다.

표 6 연령과 영역에 따른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유아들의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엄마	아이	같이	엄마	아이	같이	엄마	아이	같이
3세	.29 (.37)	.29 (.30)	.42 (.40)	.29 (.42)	.26 (.34)	.45 (.44)	.30 (.38)	.28 (.34)	.43 (.44)
4세	.23 (.33)	.49 (.45)	.29 (.40)	.14 (.32)	.48 (.42)	.39 (.41)	.30 (.37)	.48 (.45)	.23 (.34)
5세	.36 (.39)	.43 (.43)	.20 (.27)	.45 (.35)	.27 (.41)	.27 (.26)	.55 (.42)	.27 (.41)	.18 (.25)
전체	.28 (.36)	.40 (.39)	.32 (.38)	.26 (.38)	.36 (.40)	.38 (.39)	.35 (.39)	.36 (.41)	.29 (.37)

표 7 연령과 영역에 따른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어머니들의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

	개인적 영역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엄마	아이	같이	엄마	아이	같이	엄마	아이	같이
3세	.08 (.16)	.74 (.27)	.18 (.23)	.59 (.39)	.20 (.29)	.22 (.36)	.43 (.41)	.28 (.39)	.28 (.33)
4세	.05 (.14)	.75 (.30)	.19 (.24)	.61 (.37)	.21 (.32)	.18 (.31)	.64 (.38)	.13 (.22)	.23 (.37)
5세	.08 (.17)	.73 (.30)	.20 (.20)	.60 (.39)	.15 (.24)	.25 (.35)	.50 (.41)	.45 (.44)	.05 (.16)
전체	.07 (.15)	.74 (.28)	.19 (.23)	.60 (.37)	.20 (.29)	.20 (.33)	.54 (.40)	.24 (.35)	.22 (.34)

유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해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을 연령과 영역에 따라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던 반응에 3(연령)×3(영역)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영역의 주 효과가 유의하여($F_{2,116}=44.82, p<.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들은 개인적 문제를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보다 더 자녀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F_{1,58}=75.62, p<.01; F_{1,58}=48.75, p<.01$).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았던 반응에서도 영역의 주효과가 유의하여서($F_{2,116}=37.74, p<.01$) 어머니들은 도덕적 문제나 사회 관습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보다 더 어머니가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F_{1,58}=71.89, p<.01; F_{1,58}=59.57, p<.01$). 그러나 두 분석 모두에서 연령의 효과나 연령과 영역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반응에서도 어떤 주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권의 소재에 대한 어머니들의 설명을 여섯 범주 즉 도덕적 이유, 사회 관습적 이유, 개인적 이유, 실용적 이유, 안전과 위생과 기타 이유로 나

누어 코딩하였다. 표 8에 세 영역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의 범주별 평균 비율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도덕적 문제에 대한 반응에 3(연령)×6(범주)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_{5,285}=8.56, p<.01$). 친구 때리기와 그네 양보하기와 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도덕적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경향이 29%로 가장 높았으나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

표 8 영역에 따른 정당화의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

	도덕적 영역	사회 관습적 영역	개인적 영역
도덕적 이유	.29 (.33)	.12 (.23)	0 (0)
사회 관습적 이유	.17 (.24)	.31 (.38)	0 (0)
개인적 이유	.26 (.30)	.31 (.39)	.77 (.26)
실용적 이유	.07 (.19)	.03 (.13)	.08 (.14)
안전 및 위생 관련 이유	.01 (.06)	.04 (.14)	.02 (.07)
기타	.22 (.31)	.19 (.31)	.13 (.19)

경향도 26%로 그에 못지않게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인사하기나 입에 음식 넣고 이야기하기와 같은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관습적 이유나 개인적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경향이 각각 3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도덕적 문제나 사회 관습적 문제를 도덕적 또는 사회 관습적 이유로 설명하는 만큼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주의 주 효과와 범주×연령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_{5,285}=8.54, p<.01$; $F_{10,285}=1.89, p<.05$).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구, 음식, 놀이나 머리스타일의 선택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덕적 또는 사회 관습적 이유로 설명하는 경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주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_{5,285}=143.61, p <.01$).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경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아이의 통제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덕적 문제나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어머니들도 상당수 있었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와 어머니의 양육방식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월령을 통제한 다음 개인적 영역의 다섯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과 어머니의 심리통제, 행동통제, 부모 지지 사이의 편상관을 산출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세 양육방식 가운데 심리통제가 가장 많은 관

표 9 어머니 양육방식과 개인적 영역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의 상관

	심리 통제	행동 통제	부모 지지
복종 여부	-.07	-.06	-.04
지시의 적합성	.16	.12	-.19
권위의존성	.02	-.08	-.08
정서	.28*	.12	-.15
- 엄마	-.14	-.22	.26+
통제권 - 아이	.37*	.17	-.14
- 함께	-.25+	.03	-.11

* $p<.05$ + $p<.10$

련성을 보였다. 심리통제는 아이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과 .37($p<.05$)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는 개인적 문제를 아이가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유의도 수준 .10에서 유의하였던 여러 상관이 있었다. 심리통제는 정서와 부모와 아이가 같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반응과 각각 .28과 -.25의 상관을 보였고, 부모지지도 엄마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과 .26의 상관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3,4,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어머니의 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의 통제권에 대해 어머니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런 이해가 유아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어머니 양육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견한 결과와 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아들은 개인적 영역에 대한 어머니 지시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에 다르게 반응하였다. 즉, 유아들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에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보다 덜 복종해도 되고, 엄마의 지시가 없으면 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보았는데 이 결과는 4세와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박영신, 2006; Nucci & Weber, 1995). 또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간과하였던 정서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서 유아들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보다 개인적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시를 여겼을 때 부정적 정서를 덜 느꼈다. 이 결과는 4세~7세 아동들이 스포츠, 활동, 친구관계나 옷의 선택에 대한 어머니의 규칙에 복종하지 않고도 긍정적 정서를 느낀다는 선행연구(Lagattuta, Nucci, & Bosacki, 2010)와도 일치하였다. 더 중요하게는 이런 경향들이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3세 유아들도 이미 개인적 영역을 다른 두 영역과 잘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들이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를 영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에는 상당한 한계점도 드러났다. 유아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해 어머니가 지시하는 것이 다른 영역의 문제에 대해 지시하는 것만큼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을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더 인정하는 경향도 없었다. 이 결과는 유아들이 개인적 영역에 대해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보다 더 자신들의 통제권을 요구한다고 밝혔

던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Killen & Smetana, 1999; Yau & Smetana, 2003). 또한 개인적 영역에 대해 통제권을 요구한 정도도 홍콩이나(Yau & Smetana, 2003) 미국(Killen & Smetana, 1999) 유아들에 비해 훨씬 낮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준거의 점수를 살펴보면 유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복종해야하고, 어머니의 지시가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반응을 상당히 높게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3세부터 개인적 영역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 통제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정작 어머니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자녀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고, 자녀의 개인적 문제를 어머니가 통제해야한다거나 자녀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다른 문화권의 어머니들의 결과와 일치하며(Chunang, 2006; Lins-Dyer & Nucci, 2007; Smetana, 1988, 1989; Smetana & Asquith, 1994; Smetana & Gaines, 1999), 자녀들의 개인적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아들이 개인적 영역을 자신들이 통제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는 어머니에 비해 아주 떨어져서 어머니와 자녀의 견해가 크게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어린 유아들이어서 부모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나라 유아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개인적 영역에서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확보해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정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영역에 대한 어머니들의 합리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통제권만을 검토하였는데 이 밖의 개인적 영역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어머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보거나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를 개인적 이유로 설명하는 어머니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블록을 부수어버린 친구를 때리고 싶어하는 아이에 대해서 일부 어머니들은 때리고 싶으면 때려야지 할 수 없다, 부모는 때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때릴 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다, 블록을 부수었으니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혼자만 그네를 타는 아이에 대해서도 혼자만 타고 싶다면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어머니들이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다른 사람에 미치는 피해와 같은 도덕적 책무나 사회적 관습보다는 자녀들의 감정과 느낌, 선택이나 선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래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전형적으로 통제해왔던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어머니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아동들의 버릇없음이나 무절제와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아동들이 자기통제가 부족해서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통제와 교육이 필요한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의 문제들을 어머니들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도하는 데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영역의 발달과 동시에 도덕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과 지도방식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통제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부정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덜 발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여러 준거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없거나 일부 준거에서는 오히려 정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이런 결과는 심리통제가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심리통제가 유아-어머니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 같다. 즉, 심리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여 유아들이 개인적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나빠져서 유아들이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어머니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부모 지지와 개인적 영역의 발달의 관련성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지지는 자녀들의 자율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의 발달과 부정적 관련을 보여서 부모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들은 부모가 개인적 영역의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앞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지지를 받을수록 유아-어머니 관계가 좋아져서 유아들은 어머니가 마땅히 개입해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개입을 쉽게 허락하는 것 같다.

일반적 예상과 다른 이러한 결과들은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이 비교적 어려서 어머니의 심리통제나 지지가 나이 든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와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심리통제나 부모지지는 일차적으로 유아와 어머니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어린 유아들은 자신과 관계가 나쁜 어머니에게는 배타적이고, 자신과 관계가 좋은 어머니에게는 수용적인 것 같다. 이처럼 어머니 심리통제나 지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통제와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통제를 많이 받은 유아들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부모의 지시를 어겼을 때 부정적 정서를 더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통제나 개인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부모통제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박영신, 2009, 2010; Barber, 1996; Barber, Olsen, & Shagle, 1994; Hasebe, Nucci, & Nucci, 2004; Helwig, Yang, Nucci, Yun, & To, 2009).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일종의 별로 작용하여 심리통제를 많이 받는 유아들이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적 영역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심리통제와 개인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결과 가운데 일부는 관습적 유의도 .05나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일부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비록 관습적 유의도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심리통제와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의 발달이 관련될 가능성과 그 내용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

로 유아들의 개인적 영역의 발달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어머니들의 양육방식을 더 깊이있게 탐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권기정, 전숙영 (2010).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동문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2), 51-66.
- 박나영 (2011). 아동의 공감과 어머니 양육유형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 (2006). 유아들의 도덕적, 사회 관습적 및 개인적 영역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39-53.
- 박영신 (2009). 개인적 및 사회 관습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사회과학담론*, 2(1), 145-164.
- 박영신 (2010).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51-65.
- 부성숙 (2007). 유아의 도덕적, 사회-관습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개념. *유아교육연구*, 27(4), 35-56.
- 우미경, 박영신 (2012).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57-174.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증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조한숙, 문혁준 (200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 심리통제와 가족의 건강성 및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성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9), 47-60.
- Ardila-Rey, A., & Killen, M. (2001). Middle class Colombian children's evaluations of personal,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3), 246-255.
- Aunola, K., & Nurmi, J.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rber, B.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K., Olsen, J.E., & Shagle, S.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Chuang, S.S. (2006). Taiwanese-Canadian mothers' beliefs about personal freedom for their young children. *Social Development*, 15(3), 520-536.
- Hasebe, Y., Nucci, L., & Nucci, M.S. (2004). Parental control of the personal domain and adolescent symptoms of psychopathology: A cross-national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ild Development*, 75(3), 815-828.
- Helwig, C.C. (2006).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utonomy through cultures. *Cognitive Development*, 21(4), 458-473.
- Helwig, C.C., Yang, S., Nucci, L., Yun, K., & To, S. (2009). Parental control of the personal domain and adolescent symptoms of psychopathology in urban and rural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nver, CO.
- Killen, M., & Smetana, J.G. (1999). Social interactions in preschool classroom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70(2), 486-501.
- Lagattua, K.H., Nucci, L., & Bosacki, S.L. (2010). Bridging theory of mind and the personal domain: Children's reasoning about resistance to parental control. *Child Development*, 81(2), 616-635.
- Laguattuta, K.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3), 713-733.
- Lins-Dyer, T., & Nucci, L. (2007). The impact of social class and social cognitive domain on northeastern Brazilian mothers' and daughters' conceptions of parental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2), 105-114.
- Milnitsky-Sapiro, C., Turiel, E., & Nucci, L. (2006). Brazilian adolescents' conceptions of autonomy and parental authority. *Cognitive Development*, 21(3), 317-331.
- Nucci, L.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1), 114-121.
- Nucci, L. (1996). The personal domain. In E.S. Reed, E. Turiel, & T. Brown (Eds.), *Values and knowledg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Nucci, L., & Smetana, J.G. (1996). Mother's conceptions of young children's area of personal freedom. *Child Development*, 67(4), 1870-1886.
- Nucci, L., & Weber, E.K. (1995). Social interactions in the home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personal. *Child Development*, 66(5), 1438-1452.
- Smetana, J.G. (1988).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2), 321-335.
- Smetana, J.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5), 1052-1067.
- Smetana, J.G., & Asquith, P. (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4), 1147-1162.
- Smetana, J., & Gaines, C. (1999). Adolescent-parent conflict in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1447-1463.
- Tisak, M.S.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ments of moral and personal events involving physical harm and property damage. *Merrill-Palmer Quarterly*, 39(3), 375-390.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ber, E. K. (1999). Children's personal prerogative in home and school context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4), 499-515.
- Winer, B.T., Brown, D.R., & Michels, K.M. (1991). *Statistical principles in experimental design*. New York: McGraw-Hill.
- Yamada, H. (2004). Japanese mothers' view of young children's areas of personal discretion. *Child Development*, 75(1), 164-179.
- Yau, J., & Smetana, J.G. (2003). Conceptions of moral, social-conventional, and personal events among Chinese preschoolers in Hong Kong. *Child Development*, 74(3), 647-658.

1차 원고 접수: 2013. 01.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2. 21.
최종 게재 결정: 2013. 02. 22.

Preschoolers' and mothers' understanding of domains of social reasoning : The case of personal domain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and their mothers' understanding of children's personal domain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3-, 4-, and 5-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ren were asked to judge mothers' control in personal,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domains in terms of compliance, legitimacy, authority contingen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 Children judged mother's control for personal problems as distinct from mother's control for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problems on compliance, authority contingency and emotion. Unlike children, mothers indicated that they should control children's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problems and their children should control problems in personal doma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personal domain was related to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 who experienced more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tended to think that they should have more control over the problems in the personal domain.

Key Words : personal domain, moral domain, social-conventional domain, psychological control, maternal support, preschoolers